

전남대병원 기승정 교수, 복지부장관상

진단검사의학·결핵예방 공로

전남대학교병원 기승정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사진)가 최근 제10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3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국가결핵관리사업에 헌신적으로 협력하고, 결핵진료지침에 반영해 국가결핵퇴치에 공헌한 기승정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질병관리본부 제5기 결핵전문위원회 의 전문위원인 기 교수는 결핵예방 및 관리, 연구,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정책 등 결



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 학술연구역사사업 책임연구자로서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잠복결핵 진단제 평가를 위한 임상지원 및 활용 시스템 개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결핵환자의 임상검체 수집 및 세포성 면역 특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통풍' 환자 5년간 35.8% 증가

지난해 45만9,429명... 남성환자 여성의 12배

극심한 통풍이 동반되는 대사이상 질환인 '통풍' 환자가 최근 5년간 크게 늘었다. 특히 보건당국 조사에서 통풍 남성 환자가 여성의 1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통풍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지난 2015년 33만8,302명에서 지난해 45만9,429명으로 35.8%(연평균 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665억1,600만원에서 1,016억2,600만원으로 52.8%(연

평균 11.2%) 늘었다. 환자 성별을 보면 남성의 수가 훨씬 많았다. 지난해 통풍으로 병원을 찾은 남성 환자는 42만4,243명(92.3%)으로 여성(3만5186명·7.7%)의 12.1배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진료 인원 중 50대가 10만2,003명(22.2%)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0만846명(22.0%), 60대 8만2,077명(17.9%)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운영중인 온라인 건강백세운동교실 장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제공

전보 호남제주본부, 온라인 건강교실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는 비대면 건강관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연령별 특성에 맞추어 '온라인 건강백세운동교실'을 시범운영한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2005년부터 경로당 어르신들을 주 대상으로 '건강백세운동교실'을 운영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연령별 특성에 맞춘 주도적 운동

생활실천을 위해 청년층과 중년층으로 나누어 모바일 앱 '줌(ZOOM)'을 활용한 양방향 운동교실을 진행한다. 30~40대 청년층은 자세교정 및 신체균형강화를 위하여 제자리 걷기를 기본으로 유산소, 근력, 스트레칭, 점핑 운동의 조합으로 된 밸런스워킹 PT를 운영하고, 만 50~60대 중년층은 근력강화와 낙상예방을 중점으로 친숙한 음악과 함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 체조로 진행한다. /김영민 기자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9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오텍과 함께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의 3상 임상시험에서 예방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화이자 로고와 코로나19 백신. /연합뉴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사진은 모더나사 로고와 함께 그 앞에 놓인 코로나19 백신과 주사기의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접종 내년 하반기 안정화

화이자와 모더나 등 세계 유수 제약업체들이 연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효과가 '90%이상'이라는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들어 오기까지 최소한 내년 상반기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그동안 사회 전반을 마비시켰던 코로나 19 퇴치에 큰 기대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도 지역 거점의료기관에서 촉발된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백신 개발 속도와 보급 시기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외신과 제약업체들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코로나 19 백신의 효과와 접종시기 등을 조망해본다.

◇코로나19 백신 어떤 원리

미국 제약업체인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텍,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90%가 넘는 효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 프로파일 공개된 지 약 300일 만이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후보는 신기술인 '메신저 리보핵산' (mRNA·전령RNA) 방식으로 개발됐다.

기존 백신은 죽거나 약화된 바이러스를 직접 몸에 주입해 이에 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다.

mRNA를 활용한 백신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외피를 모방 돌기인 단백질 스파이크 성분을 체내에 미리 만들어 놓아 이에 대한 면역력을 생성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두 회사는 mRNA방식을 활용했기 때문에 백신 개발 속도를 줄일 수 있었다. 기존 백신을 제조하려면 달걀에 원료 성분을 배양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mRNA 백신은 이 과정 없이 만들 수 있다. 이전까지 최단기간에 사용허가를 얻은 백신은 볼거리 백신인데, 개발기간이 4년에 달했다.

화이자 등 90%이상 효능 발표...펜데믹 불식 기대

접종비용 평균 3만원 선...유통 콜드체인 확보 관건

국내 치료제 개발 성과...“내달 확보물량 등 구체화”

◇백신 초기 유통 까다로울 듯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해 유통이 쉽지 않다. 일반적인 백신의 보관 온도는 영상 2~3도다.

백신을 보관할 냉동고 1대의 가격은 2만달러(약 2,200만원)에 달한다. 배포 과정에서 백신의 실온 노출을 막기 위해 화이자는 드라이아이스로 채워진 운반시설을 자체 제조했다. 화이자는 백신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시범 배송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텍사스, 뉴멕시코, 로드 아일랜드, 테네시 등 미국 내 4개 주를 선정해 실제 배송 과정을 검토한다.

다행히 모더나 백신은 일반 가정용 또는 의료용 냉장고의 표준 온도인 영상 2.2~7.8도에서 최대 30일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영하 20도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도 보관 가능하다고 모더나 측은 설명했다.

두 백신 모두 총 2번 맞아야 한다. 화이자 백신은 첫 접종 후 3주가 지나 다시 접종하며, 모더나 백신은 4주간격으로 접종한다.

가격은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 백신보다 약 2배 비싸다. 지난 8월 모더나는 백신 가격을 1회 투여분당 32~37달러(약 3만5,000~4만1,000원)로 책정했다.

◇국내 치료제 개발 기대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국내에서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시험은 치료제 26건, 백신 2건 등

(GC5131, 혈장분획치료제) 등이 환자를 모집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 치료기회 제공을 위해 녹십자 혈장분획치료제의 치료목적사용이 3건 승인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이기에 백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백신의 효과, 부작용 검증보다 국내·외 제약사들이 중간 결과를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라며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시기 예측 어려워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5개 백신에 대한 구매 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 늦가을에 있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전에, 우선 접종이 필요한 이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분부장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개발 시차를 두고 선구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권 부분부장은 “화이자, 모더나와 도미양자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말 혹은 12월 초에는 전체적인 계약 현황과 진행 상황, 확보 물량 등에 대해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분부장은 “우선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 늦가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이 이뤄지기 전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며 “미국이나 유럽 등 먼저 접종을 하는 나라의 접종 시작 시점이 당겨지면 국내 접종도 그에 맞춰 적시에 하겠다”고 말했다.

/정리·김영민 기자

아이부터 어른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병원

주부센터
어깨/팔꿈치센터
취주센터
무릎센터
소아청소년과

수완센터럴병원
SUWAN CENTRAL MEDICAL CENTER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6 (신가동 1159)
대표전화 062) 950-97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최우수1등급 획득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_650_2500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금연지원센터

보건복지부·국가금연지원센터 지정

아간상담운영(매주 수요일 17:00~20:00)

동구 필문대로 365
전화 222-9030(금연성공)

상무수치과의원
SANGMU SU DENTAL CLINIC

- 명품 임플란트, 보톡스, 턱관절 전문의
- 사랑니 발치 전문의
- 레이저 무통 수술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북개로 91
DY빌딩 2층, 상무역 1번 출구
상담전화: 062) 371-4028, 5028

KS+ 병원
www.kshosp.com

수원 신도심에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으로 Green Hospital을 지향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양버들로 220
대표전화 062) 975-9000 응급실 062) 975-9119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